
2022년 제19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5. 6. ~ 5. 1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5. 6.	시청률	0.000

【총 평】

가정의 달 5월의 이슈를 담은 소식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됨으로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소식과 다양한 전시 소식이 풍성했다. 시민을 위해 물놀이장 등을 개장한 '한강 공원'과 '함평 나비 대축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누릴 수 있는 정보와 일상을 전달했다. 특히 '국민취업준비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했고,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은 유아 인성 교육과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현장 활동까지 담아냈다. 이 밖에 '전통 예절 체험 교육'은 전통 예절 뿐만 아니라 절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구성했고, '사진 속 지구촌 어린이' 특별전은 다양한 사진을 제공하여 역사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 활짝 열린 '한강공원' 봄나들이 인파로 북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나들이 인파로 북적이는 한강공원을 소개했다. 이달부터는 뚝섬 한강공원 음악분수, 여의도 한강공원 수상분수 등 9개소가 모두 가동되고, 2년 동안 문을 닫았던 한강공원의 수영장과 물놀이장 8곳의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 '함평 나비대축제' 3년 만에 힘찬 날갯짓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나비대축제는 20여 종의 나비 22만 마리를 만나볼 수 있다. 함평 나비대축제에서는 애벌레에서 성충까지의 나비의 성장 과정을 모두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청년 취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국민취업지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준비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일경험 프로그램은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 또는 인턴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 직업훈련과 함께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 탄약 싼고 포화 속으로, 6·25전쟁 영웅마 '레클리스'

6·25 전쟁 당시 포화 속에서 혼자 탄약을 날라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군마가 있다. 바로 '레클리스'인데, DMZ 접경지역 연천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군마 레클리스는 활약상을 담은 책과 뮤지컬에 이어 영화로도 나올 예정이다.

■ 가정의 달 '전통 효문화 체험교육' 호응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날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 공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이들에게 예절을 통해 바른 마음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국효문화진흥원 방문객은 연간 4만여 명, 전통문화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로그램	KTV 특집 문재인인의 진심		
방송일자	2022. 5. 6.	시청률	0.167

【총 평】

‘문재인인의 진심’은 지난 5년의 회고 형식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롯해 경제 영토를 넓힌 외교분야, 자영업자 보호 등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 국민과 고락을 함께한 일상을 포함한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킨 점이 돋보였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지진으로 인한 학생피해를 막기 위해 수능 연기 결정을 내린 사례, 발달장애아 초청간담회와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의 대통령의 눈물 등 휴먼 다큐 형식으로 다룬 점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청와대 참모들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 대통령을 ‘일벌레’ ‘노잼, 근엄, 진지’ 등으로 지난 5년간의 모습을 평가한 구성이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집중적으로 다뤄 ‘국민과 함께 한 따뜻한 대통령’의 모습을 정리한 점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도왔다.

【구성 및 내용】

‘문재인인의 진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을 편안하게 전달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심부터 외교, 국민, 일자리 창출, 복지, 인권, 애국과 보훈 등을 소탈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풀어냈다.

대통령 임기 5년간 풀어나가야 현안은 경제, 외교, 복지 등 다양했지만 특히 임기 초반에는 북한과의 관계였다.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를 외쳤고 남북관계 개선을 꾀했다. 결국 2018년 4월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30여 분간 함께 하는 산책에서 진솔한 대화도 나눴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키워드는 평화였다.

2018년 프랑스 국민 방문 당시는 물론 모든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시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일정을 채웠다. 2017년 인도네시아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과 함께하는 일정을 요청했고 이에 인도네시아 정상과 함께 시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 국민의 호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중국 방문 시에도 식당 행보를 이어갔다. 대외 의존도가 70% 이상인 한국에서 국가정상으로서 외교는 무척이나 중요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국가와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하고자 했다.

해외 순방이후 포항지진으로 인해 바로 대책회의에 돌입해 수능연기 결정을 내린 것이나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한 것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을 위한 정책,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가다듬었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가족들과의 만찬,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등의 직접 참석에서 대통령의 진심이 보여 졌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문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 사람의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고 여겼고 애국과 보훈은 한국의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하고 대우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5. 7.	시청률	0.010

【총 평】

‘세계로 향하는 K-트로트’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K-콘텐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전통 대중가요인 K-트로트에 대한 역사와 감성,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를 끌었다. 우리나라 트로트에 맞춰서 춤을 추는 전 세계 다양한 외국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트로트가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1934년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부터 최근 박현빈과 임영웅 씨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매료 시킨 한국의 소울 뮤직 ‘트로트’의 역사를 정리해 주었다. 이밖에 박현우 작곡가는 트로트를 잘 부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나라 트로트 역사를 설명하는 등 트로트를 친숙하게 느끼게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SNS와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핵인싸 댄스’와 박군의 ‘한잔해’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외국인들, ‘오케이’ 댄스를 추는 외국인들의 흥겨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대중 가요인 트로트가 전 세계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로트의 역사부터 트로트 배우기 그리고 앞으로 트로트가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작곡가 박현우 씨와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유재석의 부캐 ‘유산술의 합정역 5번 출구’를 방송에서 15분 만에 작곡해서 천재성 증명해, 트로트계의 ‘박토벤’으로 불리고 있다. 트로트를 잘 부르는 방법은 먼저 가사에 맞춰 애절하게 불러야 하고, 꺾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꺾을 것을 권했다. 또 100년의 역사를 가진 트로트를 살펴보았는데, 트로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발표된 시기가 1934년이었던 만큼 일제 강점기, 수탈이 심했던 목포의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트로트의 역사를 바꾼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 씨는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해서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1960년대는 트로트계의 전설 ‘나훈아, 남진’의 전성기로 나훈아는 발성이 둥글고 세련된 표현력으로 희망을 노래한 반면 남진은 기교가 풍부했고 아픔을 전하는 구성진 노래를 불러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자를 잇는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가 등장하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고 1983년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해 90년대 초반까지 주현미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트로트 4대 천왕으로 꼽히는 태진아, 설운도, 송대관, 현철이 등장했고, 이 시기에 한국 가수 최초로 정훈희 씨가 국제 가요제 상을 받으며 우리 트로트가 외국인들에게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고, 2000년대 박현빈은 트로트 가수 최초로 일본 도쿄 돔에서 공연을 한 기록을 보유했다. ‘한국을 달리는 챔보의 V로그’ 이탈리아 라미 씨의 영상 편지를 받고 한강 유람선을 소개했다. 타러 갔는데요, 챔보 역시 유람선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강의 야경과 조타실을 방문해 선장님의 도움으로 잠시 운전을 체험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5. 7.	시청률	0.070

【총 평】

‘그 정원엔 꽃미남이 산다’편에서는 350여 종의 각종 꽃을 재배하고 시민정원사를 양성해 고향인 정읍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60대 부부의 귀촌생활을 담아냈다. 특히 전국 산지를 찾아 ‘한국의 자생식물’ 도감을 출간해 꽃 알리기에 나서고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를 양성해 도시 녹지 화단 가꾸기로 아름다운 내고장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삶을 롤모델로 제시했다. 화훼분야 전문직 출신으로 정원컨설팅과 꽃문화 만들기에 나서 자칭 꽃미남(꽃에 미친 남자)이라고 주장하는 남편과 꽃가꾸기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감을 준다고 주장하는 부인 등 부창부수의 스토리가 흡인력을 높였다. 각종 정원의 모습, 갖가지 봄의 꽃을 담은 구성으로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주인공은 누구에게나 본인을 꽃미남(꽃에 미친 남자)이라고 소개했다. 2014년 고향인 정읍에 귀촌해 내장산 자락의 쌍암동 600평 마당에 350종의 꽃을 심고 꽃이 주연이자 사람이 사는 공간인 정원을 조성해 아내와 살고 있다. 정원에 심어진 꽃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며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던 주인공은 고향으로 돌아와 꽃농원을 조성했다. 사람들이 놀러와 행복해하고 송정섭씨는 꽃으로서 사람들, 세상과 소통을 한다. 그는 33년 동안 화훼를 연구한 박사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꽃 소비가 너무 적다며, 정서적인 가치를 높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꽃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인공은 은퇴 이후 국내에 정원 컨설팅과 건강한 꽃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985년부터 4년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꽃과 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결과로 식물도감을 편찬했고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그 중 화훼적 가치가 있는 식물들을 화훼로 만드는 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꽃이나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농원을 방문한 뒤 하루 쉬고 가라고 농막형태의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했다. 해당 농막에는 손님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TV를 따로 놔두지 않았다. 아내는 도시생활이 그립긴 하지만 이곳 생활도 만족해하고 동네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주인공은 시민 정원사, 숲 해설가를 교육하는 경력 20년의 전문강사로 귀촌 이후 정읍 시민들의 꽃 선생이 되어 어느새 4기 정원사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년간 배출한 115명의 시민 정원사들은 정읍시의 공터 화단을 꾸미거나 나무들의 겨울옷을 만드는 등의 자원봉사를 수행 중이다. 정읍에는 시민정원사들이 만든 개성 있는 정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모두가 피해가는 우범지역이 정원으로 바뀌며 정읍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 “하루 한 시간 텃밭에서 꽃을 가꾸는 운동 효과로 심신이 건강하고 생태계도 함께 활기를 띠게 된다”는 부부의 경험담이 꽃이 주는 선순환 철학을 느끼게 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5. 8.	시청률	0.049

【총 평】

‘친북’에서는 지난 25일 인민군창건일 열병식에서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 주변 여인들의 달라진 위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와 속내를 예측해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 대원수 계급장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대원수 추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여인은 현송월 부부장의 후배가 의전 견습생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김여정 부부장이 서열상 밀려나거나 리설주 여사와 관계가 악화될 것이 아니라며, 열병식이 가족행사가 아닌 군 행사인 것이 고려됐을 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슈 텔링’에서는 북한의 음식 문화에 대해 먹거리가 다양화 되었고 길거리 음식들이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19와 대북제재 여파 그리고 식량난 때문에 생겨난 ‘천 원 식당’에 대해 알아주었다. 이밖에 북한의 순대와 남한의 순대가 다른 점을 알려주고 북한 순대의 맛과 특별함을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친북’에서는 지난 4월 25일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야간 열병식에 얹힌 이야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 주변의 권력구도 변화와 북한의 대내외적인 행보, 한반도의 미래를 분석했다. 이 날 열병식에 하얀 옷을 입고 동반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보고 두 사람의 동반 우상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확대해석이라 의견이 있었다.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뒤 쪽에 배치됐고, 같은 라인에 여러 명의 북한 고위층 인사가 배치된 것으로 볼 때 부부 동반 우상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흰 옷을 입고 등장한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원수로 추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당시 자료 화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어깨에 달고 있는 견장을 설명해 주었다. 공화국 원수 계급장은 목란이 별을 반쯤 감싼 모양이며, 대원수 계급장은 목란이 별을 완전히 감싼 모양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대원수 계급장을 달고 등장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밖에 열병식에 등장한 수행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알려진 사실이 없으며 현송월 부부장의 후배로 의전을 배우고 있는 실습생일 것 같다는 추측을 전했다. 그 동안 지근거리 의전을 담당했던 김여정 부부장은 행사에 참여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서열문제와 관련 태양절 같은 가족 행사의 경우 김여정 부부장이 앞줄에 배치되는 것이 맞지만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열병식 같은 군 관련 행사에서는 그림자 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 있었다. 또한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부부장 사이에 이상 증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5. 8.	시청률	0.000

【총 평】

‘우리는 위탁가정입니다’와 ‘위탁 엄마의 아름다운 동거’는 어린이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위탁 양육을 소재로 다룬 기획이 주목도를 높였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를 대신 맡아 기르는 위탁모가 출연해 아름다운 동거, 고충, 문제점, 바라는 점 등 가정 위탁제도의 현주소와 과제를 소상히 밝힌 점이 유의미했다. 결국 건강한 가정이 소중한 행복이라는 점을 일깨운 기획이 탁월했다. 실제로 아이를 위탁받아 육아과정을 거친 위탁모가 위탁가정이 되기까지와 고충, 위탁부모의 법적 역할 등 문제점을 털어 놓아 해결과제를 제시한 점이 소구력을 높였고 위탁모 출연자의 막힘없는 생생한 경험담이 진행자와 시청자의 심금을 울렸다. 위탁 어린이를 양육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 잘 드러났다.

【구성 및 내용】

미혼모, 영아유기, 저소득층 육아 등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가정위탁제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사망, 수감, 학대가정 등의 이유로 양육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위탁을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도입되었다.

위탁 엄마 출연자는 결혼 전에 유치부 미술강사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앞을 지나다 니다가 복지시설 아이들의 눈빛에 이끌려 지적장애시설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15명의 아이들을 시간표에 따라 돌보면서 가족처럼 일을 했다. 복지시설에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입양을 생각했다. 현재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셋째 아이는 가정위탁제도로 만났다. 위탁엄마는 처음 위탁 의뢰가 왔을 때 자신이 없어 거절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똑같은 감정이었다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 같이 있는 아이는 생후 11개월 때 받아 보호기간이 5년이었지만 친부모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5년 더 연장했다. 위탁 엄마 출연자는 어느 날 아이가 본인이 위탁아동이라는 것을 알고 물어봤을 때 “가슴으로 낳았고 산고를 나눠서 겪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위탁아동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비가 나오고 지출실태조사서, 영수증, 수급비 통장을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물건과 함께 구입하다가 계산할 때 급하게 분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입양의 경우 등본에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동거인이라고 표기되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수술 등을 할 때 곤란한 일이 생긴다며, 함께 사는 기간만이라도 법적보호자의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발 아이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위탁모의 마지막 호소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부분에서 진행자가 위탁모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린이날 기획의 뜻을 살리고 전국 위탁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대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5. 8.	시청률	0.039

【총 평】

‘청계피복 노조 강제폐쇄 공작 사건’편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에 따른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과 해산 과정,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과 그들에게 미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사를 짚어보았다. 특히 인권 탄압의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젊은날 저의 초상”이라고 말하는 당시 노동자들의 증언이 무겁게 담아졌다. 1970년대 민주 노조의 상징이었던 청계 피복 노동조합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 이후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었다. 국가 공권력으로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역사적 진실과 노동자들의 저항과 희생을 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피복 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는 분신을 통해서 노동현장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했다. 이 사건이 출발점이 돼 2주 후 1970년 11월 27일 전국연합 노조 청계 피복 지부가 결성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배우며 자존감을 키우고 의식을 깨우쳤다.

한국전쟁 후 실항민들이 청계천 주변에 모여면서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아 상가 이름을 평화시장으로 지은 후 1962년 문을 열었다. 이어서 1968년에는 통인상가, 1968년 동화 시장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당시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15살로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었기에 노조에서는 중등학교 교육 과정을 무료로 진행했다. 이밖에 꽃꽂이, 한자 교실 등 다양한 과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체불임금 받아주었기에 회원들이 모여들었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1975년 4월 유림빌딩을 임대해 교육과 소모임 활동 공간으로 더 확장됐고 조합원의 의식은 점점 더 성장했다. 그러나 강기표 씨 공판장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신 이소선 여사가 구속되며, 노동교실은 강제폐쇄 되었다. 1977년 9월 9일 노동교실을 되찾기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서자, 경찰은 강제진압에 나섰고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81년 1월 22일 청계 피복노조는 강제 해산되었고, 강제해산 조치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나 전원 경찰에 연행돼, 11명이 구속됐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신청인들과 관련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권고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5. 8.	시청률	0.005

【총 평】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보내면서 택배 수요가 급증해 택배산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제 택배도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시대를 맞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 스마트 물류'편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의 필요성과 이점, 기대효과, 인증제도 홍보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서의 스마트 물류 전반을 소개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스마트 물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구체적 활용 효과는 무엇인지, 정부의 추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설득력을 높였다. 스마트 물류가 자동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 요소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 '스마트 물류가 곧 한국판 뉴딜이고 나의 뉴딜'임을 연결시켜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자동으로 운영되는 택배는 미래 기술이 아니라 스마트 물류시스템으로서 현재 진행 중이다. 스마트 물류는 물류의 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하여 물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각국에서 빠르게 진행 중인 물류 시설의 시스템은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을 최적화하는 작업으로 동일 면적 처리 물량을 극대화시킨다. 이를 통해 생산성은 약 2.5배 이상 증가, 인건비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물류 기업이 스마트 물류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크다. 스마트 물류 센터 한 곳에 수천억 원이 투자된다. 이에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독려하고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정책발굴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를 비롯해 철도, 도로, 항공, 대중교통, 물류 등 국내 교통에 대한 모든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특히 물류 산업의 일부인 택배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어 최근 택배를 생활 물류로 세분화하여 확장해 연구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스마트 물류 인증제 관련 인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제도를 개발했다. 작년 기준 18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올 초 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총 1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 택배 터미널의 상당부분이 스마트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물건을 싣고 내리는 부분의 스마트화가 미진하다.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거 1개 센터에서 과거 50만개를 처리했지만 현재 180만개의 박스를 처리한다. 즉 스마트 물류센터가 과거 일반 물류센터 3~4개의 역할을 담당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화 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기본 대비 10배 이상의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제조업과 달리 물류기업의 경우 해외경쟁력이 거의 없었다. 2006년 첫 인증제도 설립 이후 인증기업들의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물류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직접 운영까지 나서는 국내 물류기업의 발전이 있었다.